

## 무로우지 절

### 십일면관음상

#### 국보

높이 196.2cm 의 이 십일면관음상은 한 그루의 비자나무만으로 조각되었습니다. 9 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헤이안 시대(794~1185 년) 초기 종교 조각 장인의 높은 기술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. 대좌에는 겹꽃으로 핀 연꽃이 표현된 정교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. 이 대좌도 헤이안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지만, 섬세한 꽃 문양이 그려진 광배는 후에 덧붙여진 것입니다.

이 자비의 보살 십일면관음상은 다정하면서도 여성적인 표정을 짓고 있으며, 옷이나 소지품에서는 복잡한 표현이 두드러집니다. 관음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식과 부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. 머리 위에 배치된 11 개의 얼굴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얼굴은 자비심과 평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11 개의 얼굴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, 10 개의 얼굴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열 단계를, 맨 위의 11 번째 얼굴은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 이 상은 현재 보물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.